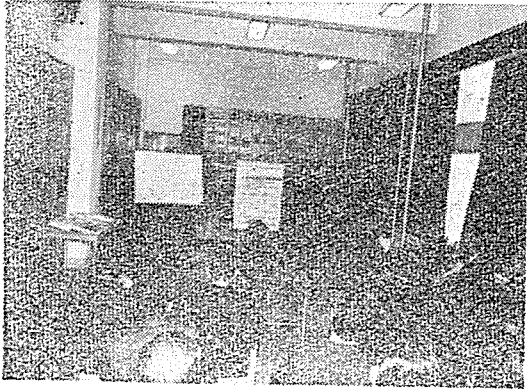


科技處長官 初度巡視

새마을技術奉仕團 홍보강화

科學技術人의 總本山으로 成長



崔亨燮長官은 이날 75年度 巡視에 指示事項의 結果를 체크하고 學會會員團體의 會費配付 實績이 60% 밖에 되지 않음을 指摘 學會가 年會費 15,000원 程度는 큰 負擔이 아니니 學會가 協調되도록 留意할 것을 指示했다. 또한 崔長官은 今年에는 科學技術會館을 完成토록 當부하였다.

한편 崔長官은 地域特化事業 推進에 있어 地域別 大學教授(새마을技術奉仕團道團員)가 擔當하는 研究事業의 結果가 나오는데로 具體的인 計劃을 세워 產學協同財團과 協調를 갖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目的이 뚜렷하고 實効性이 있는 研究事業을 產學協同財團이 支援하고 있으니 잘 協助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科技總이 基礎作業을 完成하여 實効를 걸우면 全國적으로 擴大波及시키는 것은 內務部와 協調支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 새마을技術奉仕團 活用勸獎토록 ◇

崔長官은 「새마을技術奉仕團을 農漁民이 적극 活用할 수 있도록 弘報하라」고 指示하고 새마을 指導者 練修院에 入所하여 느낀 所感을 表明하였다. 어느 새마을指導者의 成功事例를 例示 됨을 構築하는데 3,4次의 失敗를 거듭하고 급기야 成功했다는 報告를 들었다. 그 不屈의 鬪志와

崔亨燮 科學技術處 長官은 지난 2月 11日 午後 2時 30分 國立天文臺를 巡視하고 이어서 韓國科學技術團總總聯合會(회장 金允基)를 初度巡視 하였다.

崔長官은 이날 約 1時間에 걸쳐 科技總 75年度 事業實績 및 76年度 事業計劃을 ぶり핑 받고 날로 發展하는 科技總의 事業計劃에 關해 많은 關心을 表明했는데 이 자리에는 李應善企劃管理室長, 白英鶴振興局長, 李鍾秀代辯人이 配席하였다.

努力은 높지 評價되나 失敗의 要因이 土木技術者나 科學技術人이 볼 때 至極히 常識的인 것을 몰라서 애썼다는 點이다. 이들이 새마을技術奉仕團을 活用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單번에 完成시킬 수 있는 技術指導를 받았다면 그 많은 受苦와 物量의 損失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 點을 볼 때 새마을技術奉仕團의 役割은 重要하다. 農漁民이 새마을 技術奉仕團을 活用할 수 있도록 널리 弘報하라고 指示했다.

또한 새마을指導者 練修院 教育課程에 1時間程度 技術奉仕團의 紹介와 技術指導 相談課程을 두도록하는 問題를 農水産部, 內務部와 協調하도록 指示했다.

◇ 補助金 事業을 誠實히 遂行하라 ◇

崔長官은 「政府가 庶政刷新을 安保의 次元에서 다룬다」고 말하고 科技總은 얼마 되지 않는 補助金을 받고 있으나 이를 誠實히 執行하고 事務에 滿足を 期하라고 指示했다.

崔長官은 科技總이 새마을技術奉仕活動, 用語制定事業等 國家的인 重要한 事業을 잘 遂行하고 있어 感謝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奮發하여 科學技術人의 總本山으로 發展해 줄 것을 當부하였다.